

광주 전교조, 시교육청 능력 행정 비판

광주시교육청이 새학기 교육현장을 뒤덮은 미세먼지와 불철 황사 대란 등에 대비해 공기정화장치 구입을 위한 긴급 예산을 조기 투입키로 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능력행정과 업무편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이 예산을 창고에 묵혀두고 제때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여론이 다그치고 시정과 시의회 의장 등 범광주 관계기관 회의를 열러 자 우왕좌왕 학교로 예산을 내려보냈다"며 "또 필터 교체 등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렌탈로 일괄구매한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는 시간에 쫓겨 무조건 구매만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황사 대비 공기정화장치 구입 시간에 쫓겨 긴급 예산 투입키로 결정해

또 "공기질과 관련해 교육청이 학교로 보낸 공문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 '긴급재출' 필독'이라는 머리글 때문에 교사들은 행정보고와 교실수업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며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으로 눈 코 뜰새 없는 신학기 교사들에게 막대한 행정 업무를 떠넘긴 데 대해 교육청은 사과하고 능력 행정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갈광질행 행정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신설 학교들은 대부분 중앙공조장치 방식으로 공기정화와 에어컨 기능이 함께 설치돼 있음에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에도 똑같이 예산을 배부했다가 뒤늦게 학교 측 항의를 받고서야 예산을 환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모 초등학교는 저학년(1~3학년) 교실설치용 공기정화장치 예산으로 교감실, 교감실, 행정실 등 관리자 사무실에 우선 설치했다가 항의 민원을 받고 옮기기도 했

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 1만4000여 명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한다며 택배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가 택배비 탓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우려되자, 논란 끝에 직접 전달도 가능하다는 수정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무능한 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신음하고, 교사는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며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의 양을 줄이고, 공문을 양산했다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걸러내기 작업을 해서 학교에서 꼭 시행해야 할 내용만 정리해 종합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법무부 "마약·음주 범죄 시 보호관찰 적극 구형"

클럽 '버닝썬'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고조된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자들에게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을 구형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마약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과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실형이 구형될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에 관한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알코올 관련 재범 우려가 있어 교육·개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도록 했다.



봄나물 캐는 아이들 포근한 봄날씨를 보인 18일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마을 한 논두렁에서 아이들이 봄나물을 캐고 있다.

승용차 충돌 레미콘 주변서 불...시민 도움으로 피해 줄여

인근 공장 직원이 소화기 들고 불 꺼

18일 영암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승용차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인근 공터에 불이 났지만 시민 도움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4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교차로에서 A(21) 씨가 몰던 승용차와 B(32) 씨의 레미콘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차량이 인근 도로에 있던 전봇대 2개를 들이받았으며, 전봇대 고압선에서 뿜어낸 불꽃이 주변 공터로 옮겨붙어 불이 났다. 공터에 난 불이 레미콘 차량에 옮겨 붙을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 인근 금속처리공장에 근무하는 김영권(53) 씨가 달려와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김 씨는 전봇대 고압선에서 뿜어낸 불꽃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공장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다.

김 씨는 마침 회사를 찾은 협력업체 사장과 함께 공장 내 소화기 3대를 들고 나와 불을 끄기 시작했다.

또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며 상황을 B 씨에게도 알려 대피를 도왔다.

김 씨 등 2명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선 덕에 불은 차량으로 옮겨 붙지 않았다. 불은 잡풀 10㎡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김 씨는 사고가 난 승용차에 갇혀있다가 구조된 A 씨와 승용차

영국 여객기서 음주 승객들 주먹질

영국 여객기에서 만취한 남성 둘이 혈투를 벌인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현지시간) BBC,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착륙 직후 체포됐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16일 아침 스코틀랜드 서부도시 프레스트윅발 라이언어에서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맨발로 화장실에 다녀온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몹시 취한 한 남성 승객이 맨발의 여성을 비난하자 그의 남자친구가 상황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하고 음주량이 늘어나며 남성 둘은 다시 시비가 붙었다. 사소한 말다툼은 결국 주먹질로 번졌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한 남성이 주먹에 맞아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피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말했다. 또 "24살 정도의 젊은 여자 승무원이 가운데서 중재를 했다. 겁에 질려 보였지만 잘 대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승객들은 싸움을 말리는 승객과 승무원 모두 피투성이가 됐으며, 겁에 질린 승객들과 아이들의 비명으로 기내는 아수라장이었다고 말했다.

라이언어는 성명을 내고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착륙했으며, 착륙 후 두 남성은 구급됐다"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위협하거나, 승객과 직원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후의 상황은 모두 경찰 당국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홍콩 지하철, 새 신호체계 시험중 충돌 사고

홍콩에서 18일 새로운 신호체계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지하철 차량 2대가 충돌해 수백만명의 통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새 신호 시스템의 공식 개통을 앞두고 중양역과 어드미럴티역 사이에서 발생했다.

충돌한 지하철 차량에 승객들은 타고 있지 않았지만 지하철 운전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홍콩 철도 당국은 수리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하철 운영사 대중철도운송(MTR)은 초연완선(線)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며 통근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이날 아침 가우룽통역에서 여성 한 명이 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지하철 운영이 중단돼 홍콩의 지하철 마비는 더욱 심했다.

평일 홍콩의 지하철 이용객은 하루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서 연이어 지진...피해 속출

인도네시아 중부에서 연달아 규모 5대 지진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현지 당국이 18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41분께 은콘도칸다우 서남서쪽 1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앙이 남위 9.6664도, 동경 119.0596도이며 진원 깊이가 23.27km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날 오후 3시7분에는 인접한 관광 명소 롬복섬을 규모 5.5 지진이 강타했다.

진앙은 남위 8.4179도, 동경 116.5196도이며 진원 깊이가 23.61km로 나타났다.

지진으로 인해 산사태가 생기면서 최소한 관광객 2명이 목숨을 잃고 40명 정도가 고립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지진이 섬바룬불롱 남서쪽 4km 떨어진 린자니산 부근에서 있었으며 마얀 지구의 폭포를 주변에 산사태를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사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관광객에 피해를 주었으며 희생자도 이들 중에서 나왔다고 BMKG는 확인했다.

지진에 따른 진동은 이웃한 유령 휴양지 발리섬에서도 크게 감지됐다고 한다.

뉴스 사이트 폼파스 닷컴은 롬복섬의 마타람 시내의 병원에는 수십 명의 환자가 입원했으며 건물 피해를 우려한 대피 소동도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